

MU:A

무 아 인 테 리 어 매 거 진

VOL. 01

2026 · INTERIOR



MU:A INTERIOR MAGAZINE

비움, 그리고 채움에 대하여.

오래 머무는 공간을 위한 태도와 흐름

ESSAY · 비움의 미학 | DIRECTION · 무아의 스무 방향 | TREND · 2026 세계와 한국

목 차

2026, 비움과 채움 사이의 이야기

01	여는 글 — 공간을 대하는 태도 Editor's Letter	P. 03
02	에세이 · 비움의 미학 Essay — The Beauty of Emptiness	P. 04
03	무아가 추구하는 스무 가지 방향 Twenty Directions	P. 06
04	2026 해외 인테리어 트렌드 Global Trend	P. 09
05	2026 국내 인테리어 트렌드 Korea Trend	P. 13
06	에세이 · 집이라는 문장 Essay — A Home as a Sentence	P. 16
07	무아의 공간 Portfolio	P. 17
08	맺음말 · 무아와 함께 Contact	P. 19

“유행을 좇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래 편안할 것만 골라내기 위해 —”

“집은,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문장입니다.”



빛이 드는 자리에 하루를 놓는다 — 죽동 이미지

제가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는 완공하는 날에 있습니다. 텅 비어 있던 집에 처음으로 별이 들고, 고객이 조심스레 문을 열어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 하고 웃는 그 순간. 저는 그 표정을 보려고 도면을 그리고, 자재를 고르고, 늦은 밤 현장을 다시 돌아봅니다. 공간은 결국 사람의 하루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저는 매 현장에서 다시 배웁니다.

무아(無我)는 나를 비운다는 뜻입니다. 저는 공간을 설계할 때 제 취향을 앞세우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 대신 그 집에 살아갈 분의 하루를 조용히 그려 봅니다. 아침에 누가 먼저 일어나는지, 어느 창가에서 오래 머무는지, 무엇을 볼 때 마음이 놓이는지. 그 답을 따라 빛과 재료와 여백을 조율하고 나면, 공간은 비로소 사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화려한 집보다 오래 편안한 집을 만들고 싶습니다. 첫날의 감탄은 쉽게 식지만, 매일의 평온함은 십 년이 지나도 곁에 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더 넣고 싶은 유혹 앞에서 자주 손을 멈춥니다. “이걸 더하면 이 가족의 삶이 정말 나아질까?” 그 질문에 정직할 때에만, 저는 다음 선을 긋습니다.

2026년의 인테리어는 세계 어디서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차갑게 반짝이던 미니멀리즘이 물러나고, 따뜻한 뉴트럴과 손끝의 촉감, 오래 곁에 둘 물성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신기하게도 이 흐름은 제가 늘 믿어온 것과 꼭 닮았습니다. 화려함으로 눈을 붙잡기보다, 담백함으로 마음을 붙잡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렌드를 부지런히 공부하되, 트렌드에 휘둘리지는 않으려 합니다. 세계와 한국이 어디로 향하는지 읽되, 끝내는 “이 집에 사는 분에게 십 년 뒤에도 편안할까”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매거진에 담은 해외와 국내의 흐름도, 결국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이 작은 매거진에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무아가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 제가 제안하는 몇 가지 결, 그리고 2026년의 세계와 한국이 향하는 흐름까지. 부디 유행을 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래 편안할 것만 골라내기 위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끝까지 남기고 싶은 것은 멋진 스타일이 아니라, 당신의 매일이 조금 더 다정해지는 일이니깐요.

무아인테리어 대표 · 배성미 드림

비움의 미학

덜어낼수록 선명해지는 것들

미 니멀리즘은 오랫동안 오해받아 왔다. 흔히 차갑고 텅 빈 흰 방을 떠올리지만, 진짜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편집이다. 불필요한 것을 걷어낸 자리에는 빛이 고이고, 시선이 쉬고, 사람의 삶이 들어선다. 우리가 벽을 비우는 이유는 아무것도 두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하나가 더 오래 눈에 담기게 하기 위해서다.

비움은 수납에서 시작된다. 무손잡이 도어와 히든 수납으로 생활의 흔적을 벽 안으로 감추면, 같은 평수도 두 배쯤 넓어 보인다. 그러나 수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정돈된 벽이 만드는 여백, 그 여백이 만드는 고요함 —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설계하는 대상이다.

“공간은 무엇을 채웠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비웠는가로 기억된다.”

비움은 색에서도 일어난다. 채도를 한 톤 낮춘 뉴트럴 팔레트는 유행을 타지 않는다. 그레이지와 크림, 웜 우드가 겹치는 톤온톤의 공간은 계절이 바뀌어도, 가구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화려함은 쉽게 질리지만, 담백함은 오래 곁에 둘 수 있다.

비움은 소재에서도 완성된다. 반짝이는 하이글로시보다 손끝의 온도를 닮은 무광 마감, 인공의 광택보다 세월이 스며드는 원목과 석회, 마이크로시멘트 같은 물성. 빛을 튕겨내지 않고 머금은 재료들은 공간의 소음을 낮추고, 시선을 편안하게 가라앉힌다. 좋은 물성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으면서 공간 전체의 격을 조용히 끌어올린다.

그리고 비움은 시간을 건디는 일이다. 유행하는 색과 형태는 삼 년이면 낡지만, 잘 비운 공간은 십 년이 지나도 첫날의 단정함을 잃지 않는다. 가구가 바뀌고 가족이 늘어도, 여백이 넉넉한 집은 그 변화를 넉넉히 품는다. 우리가 트렌드를 공부하되 끝내 절제로 돌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비움의 미학은 절제의 문제다. 하나를 더 넣고 싶은 유혹 앞에서 손을 멈추는 일, 완성을 향해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덜어내며 다가서는 일. 무아가 매 현장에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늘 같다. “이것을 더하면 삶이 나아지는가, 아니면 그저 채워질 뿐인가.” 그 질문에 정직할 때, 공간은 비로소 사람의 편이 된다.



덜어낼수록 선명해지는 것들 — 톤온톤으로 비운 공간(스타일 제안)



“덜어낸 자리에 빛이 고이고,
고요가 들어선다.”

무아가 추구하는 스무 가지 방향

무아가 즐겨 제안하는 스무 가지 공간의 결. 유행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오래 편안했던 무드만 골라 담았다. 각각의 방향은 팔레트 한 벌과 한 문장의 태도로 요약된다 — 당신의 취향에 가장 가까운 결을 찾아, 함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비움과 채움 사이 — 무아가 그려온 스무 갈래의 결 · 엑스포 아파트 2단지

“스무 가지 방향은 결국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
이 집에 사는 사람에게, 십 년 뒤에도 편안할까?”

01 색

저채도 뉴트럴을 바탕으로, 당신의 취향이 머무는 온도를 한 겹 엮습니다.

02 물성

무광 마감과 원목·석재로 눈보다 손이 먼저 느끼는 감촉까지 설계합니다.

03 빛

겹겹의 조명으로 아침과 저녁, 시간대마다 다른 표정을 만듭니다.

스무 가지 방향 |

01

WARM MINIMAL

웜 미니멀

차가운 미니멀 대신 따뜻한 뉴트럴로. 저채도 톤온톤 위에 원목의 온기를 얹어, 비었지만 포근한 공간을 만든다.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가장 무아다운 결.



02

NATURAL WOOD

내추럴 우드

오크와 월넛, 진짜 원목의 결이 다시 공간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바닥과 수납, 아일랜드에 물성을 살리면 손끝에 닿는 온도까지 설계할 수 있다. 자연을 닮은 집은 쉽게 지치지 않는다.



03

JAPANDI

재팬디

일본의 절제와 북유럽의 온기가 만난 무드. 라탄과 리넨, 낮은 채도의 물성을 여백과 함께 두면, 비움이 곧 고요가 된다. 요란하지 않아서 더 오래 마음이 머무는 공간.



04

DARK MOODY

다크 무디

짙은 우드와 딥그린, 차콜을 겹쳐 깊이를 만든다. 층층의 간접조명이 밤을 드라마로 바꾸는, 호텔 같은 안정감. 저녁이 가장 아름다운 집을 위한 선택.



05

FRENCH MODERN

프렌치 모던

크림 톤과 웨인스코팅 몰딩, 부드러운 아치가 어우러진 우아함. 절제된 골드 포인트가 로맨틱함을 더한다. 담백함이 지루하다면, 클래식한 리듬을 얹어볼 차례.



06

COZY NORDIC

코지 노르딕

밝은 오크와 화이트, 부드러운 패브릭으로 완성하는 북유럽식 아늑함. 우드 슬랫과 러그,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이 저녁을 포근하게 감싼다.



07

EARTHY TONE

어스토픽

흙과 모래, 나무에서 온 색으로 공간에 땅의 안정감을 들인다. 테라코타와 머쉬룸, 세이지가 겹치면 벽 하나로도 온기가 돈다. 2026년 세계가 가장 먼저 꺼내 든 색이기도 하다.



08

QUIET LUXURY

콰이어트 럭셔리

로고도 과시도 없이, 소재의 완성도로만 말하는 우아함. 매끈한 스톤, 결 고운 패브릭, 정교한 마감이 조용히 격을 올린다. 사진보다 살아봐야 느껴지는 럭셔리.



09

MID-CENTURY

미드센추리 모던

티크와 월넛, 곡선의 다리를 가진 가구가 만드는 따뜻한 레트로. 한두 점의 명작 조명과 채도 있는 포인트가 공간에 리듬을 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멋이 깊어지는 결.



10

BIOPHILIC

바이오펰릭

식물과 자연광, 자연의 결을 공간 깊숙이 들이는 방향. 큰 창과 초록, 흙빛 물성이 어우러지면 집 안에서도 숨이 트인다. 도시의 피로를 자연으로 씻어내는 설계.



스무 가지 방향 Ⅱ

11

CURVED & SOFT

커브드 소프트

아치도어와 라운드 소파, 곡선 아일랜드로 각을 덜어낸다. 부드러운 윤곽은 공간을 포용처럼 감싸고, 시선을 편안하게 흐르게 한다. 직선의 긴장을 내려놓고 싶을 때.



12

MONOTONE

모노톤 미니멀

한 가지 색을 농담으로만 풀어내는 절제의 미학. 톤의 층위로 깊이를 만들면, 색이 없어도 공간이 심심하지 않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세련된 선택.



13

GREIGE

그레이지 클래식

그레이와 베이지 사이, 한국 아파트가 가장 사랑한 안전한 우아함. 웜그레이로 무게중심을 옮기면 차갑지 않게 세련된다. 어떤 가구와도 어울리는 넉넉한 바탕.



14

STONE & CEMENT

스톤 & 시멘트

대형 포세린과 마이크로시멘트로 벽과 바닥을 매끈하게 잇는다. 줄눈을 줄인 넓은 면이 호텔 같은 미니멀을 완성한다. 무광의 질감이 빛을 머금어 공간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



15

WARM INDUSTRIAL

웜 인더스트리얼

노출 콘크리트와 메탈의 거친 결에 우드와 가죽의 온기를 섞는다. 차가운 인더스트리얼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로 데운 무드. 개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원할 때.



16

CLEAN WHITE

클린 화이트

빛을 가장 환하게 담는 밝고 정갈한 화이트 베이스. 우드 포인트와 웜 화이트로 병원 같은 차가움을 걷어낸다. 작은 집을 가장 넓게 보이게 하는 정직한 선택.



17

NEWTRO

뉴트로

옛것의 정취를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쓰는 결. 짙은 우드와 빈티지 타일, 유리블록이 아련한 향수를 부른다. 새것에는 없는 이야기를 집에 들이는 방법.



18

HIDDEN & SEAMLESS

히든 & 심리스

무물딩과 히든도어, 매립 수납으로 생활의 흔적을 벽 안에 감춘다. 경계를 지운 매끈한 면이 공간을 두 배쯤 넓게 보이게 한다. 완성도로 승부하는, 무아가 가장 자신 있는 결.



19

LAYERED LIGHT

레이어드 라이트

하나의 전체등 대신 간접·포인트·펜던트로 빛을 겹겹이 쌓는다. 밝기를 나눌 줄 알면 같은 공간도 시간대마다 다른 표정을 갖는다. 저녁의 온도를 설계하는 일.



20

ORGANIC MODERN

오가닉 모던

모던의 간결함에 자연의 곡선과 물성을 더한 2026년의 새 기준. 매끈한 라인과 손맛 있는 소재가 균형을 이룬다.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가장 시대와 맞닿은 방향.



“방향은 스타일이 아니라, 오래 편안할 무드를
고르는 일이다.”

GLOBAL TREND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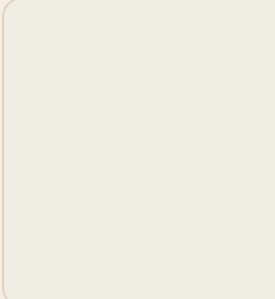
04

2026, 세계는 어디로 향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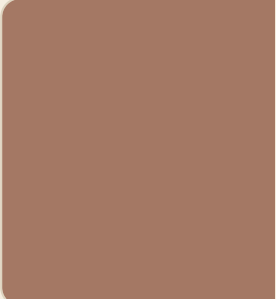
2026년 세계 인테리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차가운 미니멀리즘의 종언, 그리고 따뜻함·촉감·개성으로의 회귀"다. 디진(Dezeen)은 올해를 피상적 화려함보다 "큐레이션된 고요함 (curated calm)"의 해로 규정했다. 밀란과 런던에서 확인된 색과 물성, 그리고 오래 머무는 태도를 여덟 갈래로 정리했다.

세계가 고른 올해의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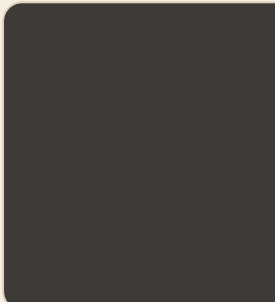
차가운 미니멀은 최소한의 순백으로, 코쿠닝은 짙은 브라운으로 — 두 극단이 동시에 부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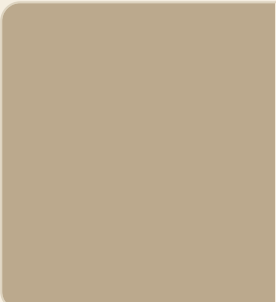
Cloud Dancer
클라우드 댄서
PANTONE 2026
사상 첫 흰색 올해의 컬러 ·
여백과 리셋



Mocha Mousse
모카 무스
PANTONE 2025
따뜻한 브라운 · 작은 사치의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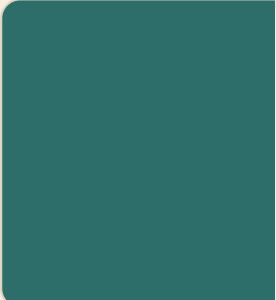
Silhouette AF-655
실루엣
BENJAMIN MOORE 2026
에스프레소·차콜 · 테일러링의
깊이



Universal Khaki
유니버설 카키
SHERWIN-WILLIAMS
2026
따뜻한 그라운드 뉴트럴



Rhythm of Blues
리듬 오브 블루스
DULUX 2026
로열블루~딥네이비의 세 갈래
블루



Transformative Teal
트랜스포머티브 틸
WGSN×COLORO 2026
블루+아쿠아 그린 · 지구 우선



Faded Terracotta
페이디드 테라코타
FARROW & BALL 전망
그레이의 반작용 · 따뜻한 흙빛



Special Walnut
스페셜 월넛
MINWAX 2026
미드톤 월넛 우드 마감

주 1 색상 값은 인쇄 재현을 위한 근사치이며, 원색은 각 브랜드 공식 표기를 따른다. **주 2** Farrow & Ball은 2026 단일 올해의 색을 지정하지 않아 브랜드 전망 (페이디드 테라코타)으로 표기함.

해외 인테리어 트렌드 |

미니멀은 이제 온도를 입는다. 차갑게 반짝이던 공간이 물러나고, 자연 소재와 손끝의 촉감이 그 자리를 채운다.

2026년 세계가 주목하는 여덟 갈래 가운데, 먼저 공간을 데우는 네 가지 흐름.

01 웜 미니멀리즘 & 오가닉 모더니즘 Warm Minimalism

차갑고 텅 빈 미니멀이 물러나고, 자연 소재·수공예 디테일·감각적 촉감으로 "따뜻하고 의도적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 새 기준이 됐다. 색은 절제하되 마감을 리넨·우드·라임워시로 채워 미니멀에 온기를 더한다.

사례 1stDibs 서베이에서 오가닉 모더니즘이 상위 미학으로 유지 — 디자이너들이 손맛·질감·정서적 편안함을 앞세움.

02 콰이어트 럭셔리, 목적을 담다 Quiet Luxury with Purpose

로고와 과시가 아니라 프리미엄 소재·장인의 완성도·절제된 우아함으로 승부한다. "사진 잘 나오는 방"이 아니라 "머무는 감각"에 방점을 둔, 살아보야 느껴지는 럭셔리로 진화했다.

사례 밀란 디자인위크 2025 — Hermès·Louis Vuitton·Loro Piana·The Row가 가구·조명으로 조용한 럭셔리의 물성을 제시.

03 진화한 재팬디 & 다크 와비사비 Japandi Evolved

일본의 절제와 스칸디의 기능주의가 만난 재팬디가 "무균의" 초기 버전을 벗고, 더 따뜻하고 질감이 풍부하며 어둡고 무드 있는 방향으로 성숙했다. 불완전함의 미학인 와비사비가 핵심.

사례 2026 재팬디는 연출이 아니라 "살아온 흔적(lived-in)" — 다크 팔레트와 손맛 있는 소재의 결합.

04 큐레이티드 맥시멀리즘 & 절충주의 Curated Maximalism

수년간의 미니멀 지배 이후 맥시멀리즘이 복귀하되, 물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오브제를 큐레이션하는 "표현으로서의" 맥시멀리즘이다. 컬러 드렌칭과 패턴 믹스, 빈티지 레이어링이 함께 간다.

사례 1stDibs 서베이 — 맥시멀리즘 39%·절충주의 38%로 최상위, 컬러 드렌칭 35%, 빈티지·앤티크 소장 평균 36%.



차가운 미니멀에서 따뜻한 미니멀로 — 2026 웜 미니멀리즘 — © Shixart1985 · CC BY 2.0 · Wikimedia Commons

해외 인테리어 트렌드 II

담백함 위에 나만의 이야기를 엮은 나머지 네 갈래. 색과 곡선, 물성으로 개성을 되찾으며 '개성 있는 따뜻함'을 완성한다.

05 바이오필릭 맥시멀리즘 Biophilic Maximalism

자연과의 연결이 화분 몇 개를 넘어 스톤 액센트 월, 노출 원목 보, 실내 허브 가든, 스카이라이트로 확장된다. 절제된 그린 대신 겹겹의 생태계를 담아 존재감과 멈춤을 유도하는 대담한 자연주의.

사례 2026 벽지·마감 트렌드로 "층층의 자연 장면"이 지목 — 자연 텍스처·소재·배치의 결합.

06 곡선·아치·부드러운 엣지 Curves & Arches

아치 도어, 라운드 소파·헤드보드, 곡선 아일랜드, 조각적 테이블 등 곡선이 니치를 넘어 주류가 됐다. 경직된 디지털 세계에 대한 반작용으로 "포옹 같은" 부드러움을 찾으며, 곡면 스톤 워크톱이 새 변주로 등장.

사례 1stDibs — 디자이너 43%가 곡선·비정형 가구를 트렌드로 지목. 밀란의 바이오모픽 디자인과 직결.

07 물성으로의 회귀 — 우드·마이크로시멘트 Materials & Finishes

2026 소재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촉감·진정성. 화이트 오크에 월넛·애쉬를 "매칭이 아니라 하모나이즈"하는 믹스드 우드, 따뜻함을 더하는 마이크로시멘트, 라탄·위커, 무광·언래커드 메탈과 핸드메이드 타일이 부상했다.

사례 1stDibs — 위커·라탄 27%. Minwax 2026 올해의 색이 Special Walnut(미드톤 월넛).

08 리치 브라운 & 어스톤 코쿠닝 Rich Browns & Cocooning

초콜릿·에스프레소·카라멜 등 짙은 브라운과 흙빛이 깊이와 감싸는 분위기를 만들며 2026 무드를 관통한다. 여기에 버건디·다크그린·버터옐로 같은 채도 높은 액센트가 결합해 "개성 있는 따뜻함"을 완성한다.

사례 1stDibs — 초콜릿 브라운 33%(4년 새 최고치), 버건디 21%(전년 7%→급등). Benjamin Moore Silhouette가 같은 흐름.



자연을 겹겹이 들이는 바이오필릭 — 큰 창과 초록, 2026 글로벌 무드 — © Shixart1985 · CC BY 2.0 · Wikimedia Commons

출처 Dezeen 2026 Interior Trends · 1stDibs 2026 디자이너 서베이(468명) · Pantone-Benjamin Moore-Dulux 2026 공식 컬러 · Salone del Mobile · Milan Design Week 2025 · Livingetc / Homes & Gardens · WGSN×Coloro 2026

KOREA TREND 2026

05

2026, 한국의 집이 바뀐다

국내 리빙 트렌드의 공식 좌표인 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2026년(31회) 세미나 주제로 "변화의 시대,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디자이너스 초이스로 "무용지용"과 "머무름"을 내걸었다. AI·자동화 시대에 놓친 감각과 재료, 오프라인 체류의 가치를 되찾자는 흐름 — 즉 "차가운 미니멀에서 따뜻한 미니멀로"가 우리 아파트를 관통하는 상위 축이다.

국내 인테리어 트렌드 |

차가운 미니멀에서 따뜻한 미니멀로. 서울리빙디자인페어와 리빙 플랫폼이 가리키는, 우리 아파트가 가장 먼저 바꾸는 네 가지 색과 형태.

01 워밍 뉴트럴 & 어스톤 Warming Neutral

차가운 화이트·쿨그레이에서 벗어나 베이지·샌드·크림의 따뜻한 중성톤이 거실의 메인 컬러가 됐다. 여기에 테라코타·머쉬룸·세이지를 포인트로 얹는 "베이지 메인 + 어스톤 포인트"가 가장 보편적인 공식.

사례 오늘의집 2026 거실 4대 키워드의 첫 번째가 "워밍 뉴트럴". 노루페인트 2025 브라운 스피렌더와 같은 결.

02 그레이지의 웜톤 전환 Warm Greige

국내 아파트를 지배한 그레이지가 유지되되 쿨그레이에서 웜그레이·카푸치노 그레이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큰 면적은 뉴트럴 웜톤으로 포근하게, 협탁·조명 등 작은 요소는 블랙·스틸로 눌러 무게감을 준다.

사례 현대리바트·LX Z:IN 시공 사례 — "웜톤 그레이+미스티 화이트", "카푸치노 그레이 벽지"가 포근함의 대표 조합.

03 무몰딩·심리스·히든 디자인 No-Molding / Seamless

벽과 천장 경계의 몰딩을 없애 면을 매끈하게 잇는 무몰딩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리모델링 키워드다. 넓어 보이고 호텔 같은 미니멀 분위기를 내며, 히든도어·히든 수납·매립 조명·회벽 마감으로 확장된다.

사례 오늘의집 2026 트렌드 첫 키워드. 단, 시공 완성도 의존이 커 "숙련 업체 필수"라는 경고가 함께 붙는다.

04 곡선·아치의 부드러움 Curves & Arches

각진 공간 대신 라운드 소파, 아치형 거울·도어, 곡선 가구가 포근함을 더하는 요소로 부상했다. 특히 모듈형 낮은 좌식 소파와 아치 상단 도어가 국내 아파트 실제 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례 오늘의집 2026 거실 4대 키워드 "곡선". 월간 THE LIVING의 2026 도어 트렌드에 아치도어 포함.



워밍 뉴트럴이 스며든 거실 — 전민동 아파트

국내 인테리어 트렌드 II

마감과 구조, 빛으로 완성되는 나머지 네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실제 리모델링과 가장 맞닿은 흐름이다.

05 우드톤의 귀환 & 뉴트로 Wood Revival

타일형 강마루의 과잉 대중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크 원목·무늬목 마루가 다시 주목받고, 짙은 티크·월넛의 미드센추리·뉴트로 무드가 인기다. 헤링본·셰브론 마루와 웅이를 살린 벌 우드 가구가 세월감을 표현한다.

사례 월간 THE LIVING이 "오크 마루의 귀환"을 2026 바닥재 트렌드로 명시. 보그 코리아는 벌 무늬목 검색량 급증을 지목.

06 대형 포세린 & 마이크로시멘트 Porcelain & Microcement

욕실·거실에서 600각 이상 대형 포세린 타일이 표준화되며 줄눈을 줄여 넓고 깔끔한 하이엔드 느낌을 낸다. 겉은 대리석·포세린이되 속은 목질인 타일형 강마루, 무광·심리스 마이크로시멘트 포인트 벽이 핵심 마감.

사례 오늘의집·월간 THE LIVING 모두 300·400각에서 600각 이상으로의 이동과 타일형 강마루를 2026 자재 트렌드로 명시.

07 존 디바이드 & 알파룸 Zone Divide / Multi-room

재택근무·학습·휴식이 한 공간에서 겹치며, 러그·조명·가구로 거실을 나누는 존 디바이드와 서비스 면적을 활용한 알파룸·베타룸(서재·홈카페·드레스룸)이 아파트 평면의 새 기준이 됐다.

사례 오늘의집 2026 거실 4대 키워드 "존 디바이드". 건설사 신평면도 30평형대에 방3+알파룸을 표준화하는 추세.

08 레이어드 조명 & 플랜테리어 Layered Lighting

천장 하나의 전체등에서 벗어나 거실은 간접·무드, 주방은 작업등, 식탁은 펜던트로 층위를 나누는 레이어드 조명과 매립·레일 조명이 표준이 됐다. 식물·자연광으로 생동감을 더하는 플랜테리어가 워밍 뉴트럴과 짝을 이룬다.

사례 오늘의집 4대 키워드 "플랜테리어". LX Z:IN 2025는 대형 창·내부 정원의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3대 축으로 명시.



무물딩·히든 수납·레이어드 조명으로 완성한 담백함 — 경성큰마을

컬러 노트 컬러는 깊은 브라운·어스톤으로 수렴한다 — 팬톤 2025 모카 무스, 벤자민무어 2026 실루엣(에스프레소), 노루페인트 2025 브라운 스피렌더가 모두 따뜻한 갈색 계열을 2026의 중심색으로 지목했다.

출처 서울리빙디자인페어 2025·2026(design.co.kr·브리크) · 오늘의집 2026 거실/자재 트렌드 · 월간 THE LIVING 2026 자재 · LX Z:IN·현대리바트 시공 사례 · 보그 코리아 2026 · 노루페인트·팬톤·벤자민무어 컬러

집이라는 문장

오래 머무는 사람을 위한 설계

설 계는 동선에서 시작된다. 현관에서 주방까지, 침실에서 욕실까지 — 사람이 하루에 수십 번 반복하는 그 경로가 매끄러우면 삶은 조용히 편안해지고, 어긋나면 매일 작은 피로가 쌓인다. 우리는 도면을 그리기 전에 먼저 그 집의 하루를 상상한다. 아침에 누가 먼저 일어나는지, 저녁의 식탁에는 몇 사람이 앉는지.

빛은 공짜로 주어진 가장 값진 자재다. 큰 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을 가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공간은 넓어지고, 시간의 흐름이 벽에 새겨진다. 조명은 하나의 밝은 등이 아니라 겹겹의 층으로 설계한다. 코브 조명이 천장을 부드럽게 밀어 올리고, 포인트 조명이 저녁의 온도를 낮춘다. 밝기를 나눌 줄 알면, 같은 공간도 시간대마다 다른 표정을 갖는다.

“좋은 집은 화려함이 아니라, 매일의 평온함으로 기억된다.”

여백은 사치가 아니라 배려다. 모든 벽을 채우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눈과 마음이 먼저 쉴 자리가 생긴다. 우리는 넉넉한 여백과 낮은 채도, 균형 잡힌 비례로 “오래 봐도 편안한” 공간을 지향한다. 자극적인 공간은 첫날에 감탄을 주지만, 담백한 공간은 십 년을 함께 간다.

재료는 온도를 만든다. 발끝에 닿는 원목 바닥의 결, 손끝을 스치는 무광 도어의 촉감, 벽을 물들이는 패브릭의 부드러움 — 눈으로 보기 전에 몸이 먼저 느끼는 것들이 공간의 첫인상을 결정한다. 우리가 자재를 고를 때 카탈로그의 사진보다 실물 샘플을 오래 만져보는 이유다. 사진은 색을 보여주지만, 손은 온도를 알려준다.

수납은 삶의 리듬을 지킨다. 자주 쓰는 것은 손 닿는 곳에, 계절을 타는 것은 깊이 감추어 — 물건이 제자리를 가지면 아침의 분주함이 줄고 저녁의 정리가 짧아진다. 넉넉한 히든 수납은 단지 깔끔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동작 하나를 덜어주는 배려다. 좋은 수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결국, 집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설계도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의 하루를 담지 못하면 무대장치에 불과하다. 무아가 마지막까지 붙드는 기준은 단 하나다. 이 공간이 당신의 지친 하루를 조금 더 다정하게 감싸 안는가. 그 대답이 “그렇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도면에 마침표를 찍는다.



매일의 평온함으로 기억되는 집 — 푸르지오 하임

무아의 공간

이야기와 온기를 담아 완성한 실제 공간들.



푸르지오 하임 · 죽동 예미지 · 엑스포 아파트 2단지 · 만년동 강변아파트

우리가 담아온 공간들은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져 있다. 별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에 가족의 하루를 놓고, 손이 자주 닿는 곳에 편안함을 숨겨 두는 일. 트렌드가 아니라 사는 사람을 먼저 읽는 그 태도가, 서로 다른 아파트에 같은 온도를 남긴다.

대전과 세종, 수도권의 아홉 공간은 모두 실제 시공·설계로 완성한 무아의 기록이다. 더 많은 이야기와 도면은 회사소개서와 포트폴리오에, 그리고 무아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담아 두었다. 당신의 집도, 언젠가 이 페이지의 한 장면이 되기를 바란다.

공간, 한 장면씩

같은 마음으로 완성한 서로 다른 아홉 집 — 그 안에서 오래 머물 순간들.



서초 · 월넛과 테라코타의 온도 · 카페 테이블 · 크림빛 우드 무드 · 엑스포 5단지 · 톤온톤의 여백 · 전민동 · 해질 무렵의 원톤 ·
죽동 예미지 · 다른 결의 재해석 · 푸르지오 하임 · 저무는 빛의 거실

“우리가 남기고 싶은 것은 사진 한 장이 아니라, 그 안에서 흐른 당신의 하루입니다.”

MU:A
INTERIOR

THANK YOU

당신의 공간에,
무아를 담겠습니다.

대표 배성미

전화 010-9447-7622

이메일 bsm619@naver.com

홈페이지 www.ttasum.com

인스타 @muadesign2025

사업자 404-10-28650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43번길 43-5, 1층 104호(중리동)

공간을 비우고, 삶을 채우다